

■ 2023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3) 시흥초등학교

가슴 시린 역사를 품고있는 숲 이야기

선흘리 동백동산습지 찾아
다양한 수생식물·곤충 서식
나무뿌리 이야기에 귀 쫓국
“4·3유적 가장 기억에 남아”



유유규 환경교육지도사가 시흥초 학생들에게 4·3 광풍에 휘말린 선흘리 주민들이 피신했던 ‘도틀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 여긴 밤처럼 어두워.” 우산처럼 햇살을 가린 나무 사이로 아이들이 줄지어 걷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숲도 잠에서 깨어나 아이들이 반겼다.

“2023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의 올해 세 번째 탐방이 지난 22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숲길 탐방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과 교사가 동행했다.

동백동산 습지는 크고 작은 용암 덩어리와 나무, 덩굴식물이 뒤섞인 숲인 곳자랄 지대이자, 난대상록활엽수 천연림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사시사철 마르지 않아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 양서류가 서식한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순채(蓴菜)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제주고사리삼’이 동백동산 습지에서 자란다.

탐방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까. 숲 해설을 맡은 유유규 환경교육지도사가 발걸음을 멈췄다. 숲 한가운데 철골 구조물로 입구를 막은 작은 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70여년 전 4·3광풍에 휘말린 선흘리 주민들이 피신했던 ‘도틀굴’이다. 도틀굴에 숨어든 25명 중 18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숲이지만 가슴 시리고 아픈 4·3의 역사도 함께 품고 있다.

숲은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다. 유 지도사가 굵은 뿌리를 지상에 드러낸 나무를 가리키자 아이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유 지도사가 말했다. “원래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곳은 돌무더기가 많다보니 나무가 돌덩이를 잡고서라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땅 위로 뻗어 돌을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 나

무처럼 튼튼해지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해.”

돌무더기를 비집고 땅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도 많다. “이런 나무들은 땅속에서 서로의 뿌리를 칭칭 묶어매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거란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줄거야.” 유 지도사의 말을 들은 한 아이가 옆의 친구를 보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한마디를 건넸다.

이밖 이날 숲길 탐방은 동백동산 이름의 유래와 동백동산이 형성된 기원을 가르치고 숫가마터와 노루를 잡는 뜻이었던 노루뿔 등 숲에서의 생활상 등을 엿보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도틀굴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는 서리아(13·6학년)양은 “학교에서 에니메이션 등으로 4·3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4·3유적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4·3 역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해수욕장 4년 만에 조기·야간 개장

함덕·협재 등 5곳 6월 24일... 7월 1일 전면 개장
이호·삼양은 7월 14일부터 한달간 오후 8시까지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4년 만에 조기·야간 개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시간, 안전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내달 24일부터 도내 해수욕장 5곳에 대한 조기 개장이 확정됐다. 조기 개장되는 해수욕장은 금능, 협재, 괄지, 함덕, 이호테우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개장 시간은 조기 개장되는 해수욕장과 동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야간 개장도 이뤄진다. 야간 개장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호테우와 삼양해수욕장 두 곳에서 운영되며, 개장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과 민원 해소를 위해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 구역을 구분해 지정 고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제주시 지역 금능·협재·괄지·이호테우·삼양·함덕·김녕·월정 등 8개소, 서귀포시 지역은 화순금모래·중문색달·표선·신양섬지 등 4개소이다.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6년 400만8000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102만2000명, 2021년 9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는 13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자 웃으세요” 24일 제주시 향파두리 향몽유적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양귀비꽃밭에서 사진을 찍고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성 옛길 도로 유구 결국 사라진다

문화재청 “이전해 보존 않고 기록으로 남겨도 의미 있어”

제주시 관덕로 8길 지중화 공사 구간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도로 유구(본보 5월 18일 자 5면)에 대한 기록 보존이 결정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해 24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제주시 등에 각각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남문지 치성과 응성의 잔존 유구는 상부에 석분, 골재로 포설해 보호 조치하는 방식으로 현지 보존하는 반면 한릿골 제주시 관덕로 도로 유구는 기록 보존한다. 도로 유구는 앞서 전문가 검토 회의에서 부분 이전 보존 등이 제시됐으나 지중화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철저히 기록 보존해 교육·전시 자료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냈고 매장문화재 분과위에서 이를 원안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성 관련 첫 도로 유구로 판단하고 있지만 도로 일부로 도로 폭이나 구조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그래서 이전 보존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겨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번에 도로 유구가 다시 나오면 이번에 확인된 구간을 참고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유적 발굴로 중단됐던 지중화 공사를 재개하게 된 제주시에서는 의결 내용대로 도로 유구를 3D 스캔해 기록 보존하고 향후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조사 내용 등을 담은 안내판을 제작해 인근 소공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시의 기록 보존과 별개로 ‘제2차 제주시지 보존·관리와 활용 계획’에서 용역진이 단기 사업으로 제안한 ‘성안 옛길 포장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성안 옛길 포장’은 제주성 옛길의 기억을 보존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1914년 일제지적도를 근거로 제주현무암을 이용해 박석으로 포장하는 사업이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옛길 포장 사업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도로 유구가 확인된 곳을 포함 전체적인 실형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서귀포시가 향후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이면도로와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륜차 대상 LED·소음기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비롯 원상 복구 및 정비 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취급 품목 LP가스 용기충전/판매, 집단(별크)공급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보유

공급 업체 아파트, 골프장, 빌리지 & 리조트, 호텔, 펜션, 다세대 주택 등

전주시사 - 자동차충전소 / 용기충전소 안성지사 - 자동차충전소 / 주유소

가스안전·가스공급·가스시공 LP가스전문기업

JS (주)진성에너지 본사 제주시 한복로 162 **문의전화: 721-7600**